

정부, 외국기관 환전 거래상대·시간 확대한다

기재부, 글로벌 투자자 대상 설명회 이달 중 금융위 등 협의 방안 마련

국내 주식시장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관이 보다 다양한 시간대에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이달 중 발표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일(현지시간) 런던에서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설명회는 한국 경제 상황과 2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외환 시장 구조 개선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환전과 관련한 건의사항이 제시됐다. 외국인 투자자가 보다 다양한 외환거래 상대방(외환 은행)과 다양한 시간대에 편리하게 환전하기 위해서는 환전 대금의 결제 실패 위험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차관은 이런 요구를 반영해 1분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오전(현지시간) 런던에서 열린 런던 현지 글로벌 투자자 설명회에서 한국경제 상황과 2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기 중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환전 거래상대와 시간의 선택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외국 금융기관이 원화 자산 투자 시 환헤지(위험분산) 가능 규모가 실수요(투자한 원화자산의 가치) 범위로 제한된다는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의 오해에 대해서도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바로잡았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외환시장 구조 개선 조치들은 외국인들의 원화에 대한 접근성을 선진 통화 수준으로 제고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외환제도·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한국 자본시장의 근본적 매력도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글로벌 주식·채권 투자기관으로부터 우리 외환시장 접근성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다수의 외국인 투자자는 외환시장을 외국은행에 개방하고 거래시간을 런던 영업시간에 맞춰 새벽 2시까지 대폭 확대한 최근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투자자들은 또 이러한 변화가 실제 외환 수요자인 외국인 주식·채권 투자자들의 실질적 환전 편의 제고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농어촌공사

‘한·일 농업분야 워크숍’

정책·기술 동향 공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5, 6일 양일간 공사 농어촌연구원 등에서 한·일 양국의 농업기술 발전을 위한 ‘제13차 한·일 농업분야 실무급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일 실무급 공동 워크숍은 2007년부터 한·일 간 농업분야 교류 협력을 위해 추진됐으며, 이번 행사는 2020년(코로나 이후) 4년 만에 개최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공사, 일본 농림수산성, 농업분야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일 농업 및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정책·기술 동향’을 주제로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국제농업정책 ▲생산기반 설계기준 ▲미래농업발전방향 ▲수자원 확보 방안 ▲기후위기 대응방안 등 양국 농업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을 동향을 공유하고 농정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기후·환경·농업 등 지리적, 환경적으로 유사한 양국의 공통점에 공감하며 앞으로 진행될 논 농업지역에서의 물·생태계 국제네트워크(INWEPF), 국제관계배수위원회(ICID) 등 다양한 국제기구 행사에서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촌개발 등 농촌·농업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한다는 데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았다.

/신하은 기자 godhe@

농식품 벤처·스타트업 성장에 최대 5억 지원

농식품부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 심사 후 우수기업 15개사 내외 선정

농림축산식품부가 6일 ‘2024년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벤처·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기간은 오는 2월 7일~3월 11일이며, 서류와 발표 심사를 거쳐 우수기업 15개사 내외를 선정한다.

이 사업은 우수기술과 참신한 생각(아이디어)으로 사업화에 성공한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의 빠른 성장을 지원



정부세종청사 내 농식품부 전경. /메트로

하기 위해 올해 새로 도입한 사업이다. 민간의 투자와 추천을 받은 우수기업에 최대 5억 원의 사업화자금

원한다.

농식품부는 “그간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매년 370여개 기업을 선정해 자금,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을 지원해 왔으나, 창업 이후 자금확보가 어려워 추가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본 사업을 신규 편성했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은 민간 투자사(창업투자자, 벤처투자사 등)로부터 최근 2년 내 1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고 추천을 받은 농식품 분야 벤처·창업기업이다. 우수기업 15곳 안팎을 뽑는다.

선정된 기업은 민간투자 규모에 따

라 최대 5억 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투자상담(컨설팅) 및 기업설명(IR), 농식품 창업박람회 내 전용관 제공 등 다양한 후속지원이 제공된다.

세부사항은 ‘농식품 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역량 있는 우수기업이 성장할 좋은 기회”라며 “이 사업을 통해 농식품 분야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나타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수계관리기금으로 수돗물 안정적 공급

환경부, 3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 수돗물 수질 오염 등 사고 대응 추가

환경부는 6일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등 3대강의 관리 지침이 변경돼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물관리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3대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오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법의 목적에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문구가 추가됐다. 또 수계관리기금 용도에 1)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2)수돗물 수질 오염 등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이 추가됐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물관리 사업은 ‘수도법(제3조 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정수시설의 유지

관리 △하천수 등 수자원의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 △유출·방치된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관리 △조류(藻類)에 방 및 저감 사업 등 총 4개 사업이다.

이번 개정은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수 및 정수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또 정확한 수자원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가뭄 발생 시 효율적 수자원 이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가 내릴 때 비점오염원의 상수원 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에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수계관리기금을 수돗물 수질오염사고,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등으로 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관련 사업이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스마트축산 보급 확대 등 방안 모색”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청년 축산농업인 등과 간담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일 오후 경기 평택에 위치한 지능형 양돈농장을 찾아 스마트 축산 현장을 참관했다. 또 미래형 스마트축산을 실현하고 있는 청년 축산농업인과 스마트축산 확산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에 방문한 축산농장(로즈팜)은 어미돼지·새끼돼지 등 성장단계를 감안해 데이터 기반 사료공급량을 최적화했다. 일반농가 대비 사료비를 19% 절감하고, 축사내 공기를 중앙에 집중해 배기하는 시스템과 공기 세정기(에어워셔) 등을 도입해 악취를 획기적으로 저감한 지능형 양돈장이다.

송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스마트축산은 생산성 향상, 악취와 가축질병의 과학적 관리 등 축산현장의 구조화된 문제 극복을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우리 축산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축산 보급·확산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청년농업인, 스마트장비업체, 축산물품질평가원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청년 농업인들은 ▲솔루션 중심의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보급·확대 강화 ▲실습 교육장 등 청년 농업인들의 체험·기회 확대 ▲스마트장비 및 솔루션 활용 확대를 위한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건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스마트축산 보급 확대를 위해 축종별 및 분야별 성과모형을 창출하고, 도입 농가의 교육·체험 기회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스마트축산의 성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해외 진출 기반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에 갖추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세종=김연세 기자